

참여관찰을 통해 살펴본 청소년들의 외모관리행동(제2보)

-피부관리, 몸매관리-

한동조·박길순[†]

대덕대학 디자인학부·충남대학교 의류학과

Appearance Management Participant Observation Teenagers Look around II

-Skin Care, Body Care-

Dong-Jo Han · Kil-Soon Park*

Dept of Design Class, Dauduk College ·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I. 서론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이상적인 외모기준이 젊고, 날씬하며 서구화된 신체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 하나의 문화적 사실이다. 외모관리가 일상화 되어 지고 있는 21세기 사회문화적 현상은 인간의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중요성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으며, 자신의 외모에 대해 가지는 만족감은 심리적 안정과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신뢰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과거에 비해 사회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화장 및 피부관리, 미용성형을 하는 동기에 있어서도 본능적인 면보다는 사회 심리학적 역할이 크게 반영되고 있다. 특히 청년기에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고 자아관이 불안정한 시기이기 때문에 자신의 외모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은 그들의 기분이나 행동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서화숙, 2002)

김양진외(1992), 조선진(1996)등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영상 매체의 발달로 인기 연예인을 모방하려는 심리가 강해 섭취 제한이나 에어로빅, 헬스 등을 통하여 이상형에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들은 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 외모로써 사회적 승인을 받는다고 생각하여 의복, 화장, 액세서리 등으로 불안감을 보완하려는 경향이 높다는 구자명, 이명희(1994), 심정은·고애란(1997)의 연구 결과가 이러한 현상을 말해주고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외모관리행동에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가를 살펴보기 위해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참여관찰 연구방법은 연구자가 연구대상의 주변상황에 치중하여 내부적인 현장(setting), 상호작용, 관계, 행위, 사건 등의 측면을 체계적으로 관찰하여 자료를 창출해 내는 방법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박성희, 2004), 이는 특히 문화인류학의 영향을 받은 학자들에게 연구전략으로 채택되어지고 있다.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이들이 자주 모이거나 왕래하는 장소에서 외모 및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특성을 살펴보았다.

참여관찰은 전문가 집단 10인과 토의를 거쳐 서울과 대전지역에서 남녀 청소년들이 많이 등장하는 장소를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서울 지역에서는 명동, 청계천, 홍대앞, 신촌역 부근이 선정되었고, 대전 지역에서는 은행동 일대를 선정하였다.

기간은 2007년 5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참여관찰의 특징으로 인해 관찰 대상자의 수를 지정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이고 상세한 질문 대신 폭넓은 질문으로 관찰 대상자의 자유로운 답변을 유도하였으며, 사진촬영과 함께 간략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결론

[†]교신저자 E-mail: kspark@cnu.ac.kr

청소년들의 외모에 관한 특징을 참여관찰방법을 활용하여 파악하였다. 이 방법이 연구대상자들의 특징들을 완벽하게 파악 할 수는 없지만, 관찰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집단을 선정할 하는데 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본 연구의 첫 단계로 시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드름 등으로 인한 피부트러블로 인해 자신의 피부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마른 몸을 선호하는 특징을 보였는데 이는 연예인들처럼 자신을 치장하고 싶어하는 욕구에서 발생되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또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특징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피부관리는 다양한 제품 등으로 해결하려 했으며, 성인이 되어서 꼭 투자를 해보고 싶어 하는 부분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청소년들은 또한 또래와 어울려서 함께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또래 동조성의 영향이 피부관리나 몸매관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여관찰 결과 청소년들의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범위나 그 지수는 어느 정도 높게 나타날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자아존중감이나 신체만족도가 외모관리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참여관찰을 통해 청소년들의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였으며, 좀더 정확하고 세분화되어진 자료를 얻기 위해 자아존중감과 신체만족도 그리고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고, 양적 연구에서 단순화되어지는 결과들을 심층면접을 통해 본 연구의 일반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서화숙, (2002), “여대생들의 체중조절경험과 신체적 특성에 따른 신체만족도 및 의복만족도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상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양진외(1992), “의복 및 신체만족도와 학업성취도가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 의류학회지, 16(2), pp.197-211, 1992.

조신진(1996), “일부 여대생의 비만수준 및 체중조절 형태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구자명·이명희(1994), “남녀 중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사회성 및 성취동기에 관한 연구”, 가정학회지, 32(5), pp.153-163, 1994.

심정은·고애란(1997), “청소년기의 자의식 및 체중조절 행동과 의복행동과의 관련연구”,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논문집, 11, pp.15-29, 1997.

박성희(2004), 질적 연구 방법의 이해, 원미사.